

공연예술자료의 정리와 기술 방안 연구

- 공공기관의 현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for Performing Arts Resource: Focusing on current states of public Institution

이창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eoo48320@hanmail.net

이호신,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 leehs@hansung.ac.kr

Chang-Min Lee,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ansung University

Hosin, Lee, Department of Knowledge & Information at Hansung University

최근 국내에서는 공연예술의 문화적 가치 향유와 보존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단위 움직임은 물론 민간단위에서도 공연예술 관리 기관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그 관심의 정도를 말해준다. 하지만 관심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연예술자료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맥락을 온전히 수집·정리·서비스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 공연예술자료관리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세 곳을 사례로 하여 국내 공연예술관리 기술·정리 현황을 조사·분석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리와 기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그 보존과 전승에 대한 논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연예술은 여러 가지 상이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집합적 참여로 작품이 생산되고 유통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 작품의 생산과 유통, 전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유하고 특별한 맥락을 과연 어떤 형식으로 유지하고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는 공연예술자료의 정리와 기술을 위한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공연예술자료와 관련해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대부분은 공연예술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의 제

시에 관한 사항이었고, 최근 들어서 수집과 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공연예술자료의 특성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그 특수성에 기반을 둔 정리와 기술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10a, 2010b)은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와 국립예술자료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의 자료와 관련된 연구에서 하나의 공연에서 다양한 매체의 자료가 동시에 생산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공연예술자료는 집합적인 기술을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세트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설문원(2011)은 국내외 예술기록 정리와 분류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에서 기록 생산 과정에서의 맥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출처 및 원질서 유지의 원칙에 기반 해서 예술기록의 조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내 공연예술자료 관리 기관들의 경우에는 자료의 계층적, 집합적 정리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정보 단위를 중심으로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공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특성과 맥락이 자료 정리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와는 별개로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연예술자료 전문 기관들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사정에 맞추어서 공연예술자료를 정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들이 공연예술자료의 특수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공연예술자료의 정리와 기술을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공연예술자료의 정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록 관리 이론에서의 기록물 정리에 관한 원칙을 재검토하고, 이러한 원칙이 실제 공연예술자료를 관리하는 기구들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공연예술자료 정리와 기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연예술자료 : 용어와 그 종류

공연예술의 현장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범위와 정의는 논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 제작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생

산된 모든 기록물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물 속에는 도서, 음반, 포스터, 팸플릿 등과 같은 출판물 혹은 인쇄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계문서나 스텝들의 메모가 기록된 대본 등과 같이 유일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기록물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공연현장에서 주인공이 사용한 소품이나 소도구와 같은 박물관의 성격을 지니는 자료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공연의 창작과정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들은 매우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공연예술기록, 정보, 자원, 콘텐츠 등 비슷하지만 조금씩 관점을 달리 하는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록’은 현장성과 증거로써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용어이며, ‘자료’는 연구, 조사의 바탕이 되는 재료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Naver 국어사전). 한편 ‘정보’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

공연 현장에서 발생된 자료 가운데에는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과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 도서의 성격을 지닌 것들이 모두 혼재되어 있어서 기록, 정보, 콘텐츠라는 특정한 측면의 용어보다는 공연예술자료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2.2 기록물 정리의 원칙 : 출처 및 원질서 존중의 원리

기록물 관리가 도서관의 자료 정리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개별 자료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그 기록이 생산되고 보존된 맥락을 보존하려는 데에 있다.

기록 생산과 보존의 맥락의 보존을 위해

서는 기록물의 내용, 구조,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지적 통제’와 필요할 때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 통제’가 모두 필요하다. 기록관리학에서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 정리의 기본원리로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의 원칙은 일정한 기록물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기록을 함께 모으며 다른 기록물 생산자의 것과 뒤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원칙(Miller, 2002).을 의미한다. 원질서 존중 원칙은 기록을 정리할 때 처음 생산자나 기관이 축적한 기록의 순서와 방식을 존중하여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 기록관리학회, 2013). 그리고 이러한 원리의 실제적인 구현을 위해서 기록물의 집합적이고, 계층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공연예술자료는 하나의 공연에서 다양한 매체의 자료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공연생산 과정에서의 맥락을 충실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집합적이고 계층적인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 출처 및 원질서유지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연예술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적인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과연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그 출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의문이다. 또한 기록물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록물과는 달리 그 관리 체계의 통제가 매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커다란 의문 가운데 하나이다. 공연예술자료의 정리에서 과연 공공기록물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출처중심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심층적인 논의와 탐구의 대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세한 규명 이야말로 집합적인 활동의 결과물으로써 공연예술자료를 관리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3. 주요공공기관의 자료 정리 사례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예술자료원은 1979년 예술전문도서관으로 출발해서 2010년도부터는 아카이브로 그 체계를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는 예술자료전문기구이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도서관으로서의 자료 수집과 정리, 서비스를 제공한 까닭에 자료 수집과 정리 체계에서 도서관적인 전통(집합적 기술이나 계층적 기술이 아닌 개별자료 중심의 정리)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다. 소장자료 약 30만여 점 가운데 도서자료가 약 8만5천여점, 음반 32,081점 등을 차지하여 출판자료의 비중이 매우 크다. 2011년부터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를 구축하여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빙을 도모하고 있다. DA-Arts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크게 예술단체, 예술인, 공연예술, 시각예술로 구분하여 정리되고 있으며, 각 개별 요소의 하위 단위에 상세한 분류가 별도로 이루어진다.

<표 1> DA-Arts 정리체계

| 정리기준 | 정리체계 |
|------|---------------------------|
| 예술단체 | 공연단체, 전시장/갤러리, 극장/공연장, 기타 |
| 예술인 | 공연예술, 시각예술, 대중예술, 문학, 기타 |
| 공연예술 | 연극, 무용, 음악, 민속, 기타 |

예술자료원은 공연예술기록의 정리를 위하여 FRBR개념을 차용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메타데이터 입력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연의 바탕을 이루는 작품정보, 공연정보, 매체정보를 각각 구별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작품정보는 하나의 작품이 여러 차례 다른 공연으로 반복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공연에 대한 일종의 출처로서, 계층적인 기술로써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공연정보는 하나의 공연에서 파생된 다양한 매체들을 동일한 공연에 묶어서 보여주기 위한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공연예술은 여러 사람의 집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하나의 공연예술자료는 예술단체라는 하나의 출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자료는 예술인, 공연장소, 공연작품 등을 통하여 다시 재배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공연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여러 가지의 계층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을 데이터의 계층적인 구조에 반영하려는 시도이다. 여러 사람들의 집합적인 활동의 결과물인 공연은 하나의 단일한 출처로만 설명될 수 없고, 그 출처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2009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공연예술박물관이다. 개관 당시 국립극장 공연 자료실에 비치 중이던 10만 여점과 기증 캠페인으로 수집된 자료 1만 2천 점을 포함하여 현재 공연예술자료 198,620점과 도서자료 15,636점을 포함하여 총 214,256점(2013.12.31.현재)

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 자료는 도서 및 각종 팸플릿류 예술자료원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연예술자료와 관련된 박물관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의 자료정

| 정리기준 | 정리체계 |
|------|--|
| 공연장르 | 연극, 창극, 판소리, 무용, 국악관현악, 발레, 오페라, 합창, 교향악, 기타 |
| 자료유형 | 영상, 포스터, 사진, 프로그램, 무대디자인, 음향, 기타 |
| 공연단체 |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교향악단, 기타 |

소장자료의 목록은 공연장르, 자료유형별, 단체별로 정리되어서 제공되고 있다. 하나의 동일한 자료가 공연장르, 자료의 유형, 공연예술단체 등으로 다차원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공연작품을 중심으로 해당 공연에서 사용되었던 자료를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집합적, 계층적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리체계와 비슷하게 데이터가 하나의 개별 단위 정보로 표시되며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자료 집합을 보여준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국립극장 자료 구성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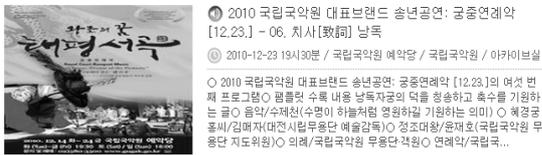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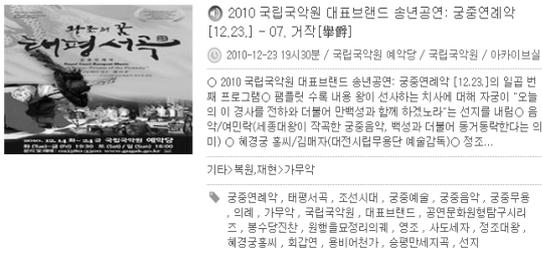
3.3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국립국악원에서도 공연예술을 제공하는 국악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951년 설립된 국악원의 자료 및 1995년 개원한 국립국악박물관의 자료들과 2007년부터 모은 기존 컬렉션을 바탕으로 약 18만 여점의 자료를 운용중이다.

관리 자료의 정리는 국악정리, 자료유형으로 나누어 브라우징을 제공한다. 하위 정리체계는 <표 3>와 같다.

<표 3> 국악 아카이브 정리체계

| 정리기준 | 정리체계 |
|------|-------------------------------|
| 국악정리 |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 무용, 연희, 기타 |
| 자료유형 | 동영상, 음향, 이미지, 텍스트, 복합, 유물, 기타 |



<그림 2> 컬렉션별 자료 구성

| | |
|-------------|--|
| ● 자료명 | 2010 국립국악원 대표브랜드 송년공연: 궁중연례악 <황조의 꿈, 태평서곡> [12.23.] - 07. 거각 [樂辭] |
| ● 일시/장소 | 2010-12-23 19시30분 / 국립국악원 예악당 |
| ● 컬렉션/소장처 | 국립국악원-장악과 / 국악아카이브실 |
| ● 기록유형/저장매체 | 음향 / DAT |
| ● 원본저장매체 | 해당없음 |
| ● 분류 | 기타>복원,재현>가무악 |
| ● 저작권유무 | 부분 |
| ● 키워드 | 궁중연례악, 태평서곡, 조선시대, 궁중예술, 궁중음악, 궁중무용, 의례, 가무악, 국립국악원, 대표브랜드, 공연문화진흥원구시리즈, 봉수당진한, 원형유물정리과, 영조, 사도세자, 정조대왕, 혜경궁홍씨, 화갑연, 흥미어찬가, 송평민제지곡, 선지 |

<그림 3> 국립국악원 실 자료 구성화면

특이점으로 컬렉션별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컬렉션이 건별로 나뉘어져 있어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어렵고 해당 건들의 직속 상위계층이 국악 아카이브가 사용하는 최상위 계층의 하나인 국악 정리(정악, 민속악 등)인지라 사실상 컬렉션이라 지칭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그림 2, 3참조) 국악 아카이브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층적, 집합적 기술 구축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더구나 동일한 공연에서 나온 자료인 도서 자료는 아카이브에서 관리하지 않고 따로 별도 기구인 도서실을 두어 관리 중이다. 공연의 맥락과 원활한 접근을 위해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필요해 보인다.

4. 시사점

국내에서 공연예술자료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 3곳의 공연예술자료의 소장 및 정리 현황을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례와 현황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연예술자료는 도서 및 음반을 비롯한 다양한 출판물, 공연예술 현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 현장에서 사용한 박물관류 등 여러 종류를 망라하며, 그 관리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성격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기구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집 자료의 실질적인 종류는 상당히 유사하며, 그 주안점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계공연예술도서관 박물관협회인 SIBMAS의 회원 구성에서도 유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는 공연예술 자료는 출판물, 기록, 박물관류를 두루 망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기구들은 라키비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라키비움적인 요소가 고려된 공연예술자료의 정리 체계에 대한 별도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이들 기관들의 자료정리는 개별 자료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공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다 온전하게 보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집합적인 기술이 필요함은 선행연구(설문원, 201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지만 공연예술자료는 여러 사람의 집합적인 활동의 결과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하나의 자료에 여러 개의 출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결 론

공연예술은 여러 상이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적인 활동 결과로 나타난다(국립극장, 2007). 즉 작가, 연출가, 연기자 등 개성이 강한 수많은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공연의 과정과 어우러져 사상과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출처가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다원적인 출처를 인식한 계층적이고 집합적인 기술과 라키비움적 공간요소를 반영한 고유한 기록관리 체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보존,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공연예술자료의 정리와 기술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과 추가적인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례분석에 지나지 않다는 점, 구체적 실무지침이나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태은. 2011. 「국내 공연예술 기록물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국립극장. 2007.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설립 기본계획」. 국립극장.
- 남성호. 2006. 공연예술자료관의 과제와 전망: 와세다대학 연극박물관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자료관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극장 세미나 자료집」. 국립극장, 2006.
- 남성호. 2013. 공연예술기록의 수집과 선별. 「예술기록관리 입문 과정」. 국립예술자료원.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 217-247.
- 이호신 외. 2007.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방안 연구」. 서울 : 예술경영지원센터.
- 이호신. 2014.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존재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무용역사기록학회지」, 33 : 12-31.
- 윤용준. 201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의 현황과 발전방안. 「예술경영연구」, 21 : 91-122.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성남: 아세아문화사.
- Fredric. M.Miller저/조경구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J-M-Otoole저/이승익 역. 2004. 「기록의 이해」. 서울: 진리탐구.
- Phelan, Peggy. 1993. Unmarked : The Politics of Performance. New York : Routledge.